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기 왜 좋은가?
● 지리산지역 함양은 재래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 원종적 품종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興國農産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의정부 포교원 정혜사의 사찰재정공개운영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지역포교와 사회복지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년소녀 가장 돕기, 경로잔치, 독거노인 돕기 등 재정의 30%가 사회로 환원된다.



◇신도들은 경리를 맡고있는 신도에게 인동비, 기도비, 운영보시금등을 납부한다.



◇매달 첫주 일요일에 열리는 사찰운영위는 정혜사의 운영과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민주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사진은 스님과 신도회장이 2월 결산내역을 감사하고 있다



◇고려시대 불상양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천안 삼태리 마애불입상.

마애불을 찾아서

천안 삼태리 마애불 입상

소발의 머리카락·동근 육계 '인상적' 두 손 가슴앞으로 든 독특한 손모양

충남 천안시 동서면 삼태리에 있는 마애불은 거대한 산장바위에 돌출해 있다. 넓적하면서도 박력있는 얼굴, 길게 쳐켜올라간 눈, 광대뼈가 나온 뺨, 큰 코와 작은 입 등의 이목구비가 매우 강건한 인상을 주고 있다. 소발의 머리카락과 동글고 큰 육계도 각 인상적이다. 두 손은 가슴 앞으로 들어 독특한 손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수인은 고려시대의 미륵불 수인들과 같은 것이어서 불상 명칭까지 알 수 있다. 넓은 어깨에 걸친 통견의 불의는 배 아래에서부터 T자형의 주름을 형성한 점이나 손끝을 들어 내린 의식의 대칭적인 표현 등은 거침없고 활달한 면이지만 선각의 팽팽한 처리, 끝단의 마무리 등에서는 도식화된 면도 보인다. 이처럼 장체적인 형태나 상호, 옷주름의 표현 등이 고려시대 불상양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마애불상으로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보물 제407호.

글·사진 = 불자포교사건연합회 (011-337-7312)

사찰재정 투명화 9년 의정부 정혜사

열린사찰...스님도 신도도 '주인'

정혜사 주지 혜승스님

인 터 뷰



"삼보정재를 포교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지요" 의정부 정혜사주지 혜승스님은 "신도와 스님이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며 "사찰공개운영이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스님은 또 "아직까지 사찰에서는 주지권리가 막강하다보니 삼보의 권력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외화하는 신도회장도 유명무실하다"며 "사부대중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사찰운영에 참여해야만 불교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다"고

수입·지출 '공개'...재정 30% 사회복지에 군불자 후원-푸드뱅크 사업 등 포교 열심

오전 9시가 되자 조계종 의정부 포교단 정혜사 정기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질에 온 선화영보살(의정부 두촌사당 운영)이 종무소에 둘러 경리를 맡고 있는 신도 문혜경보살에게 운영보시금을 전달한다. 경리신도는 웃음으로 화답하며 월보시금 카드에 납부 도장을 찍어준다.

이러 신행모듬별 회장들이 각 담당의 불전함을 들고 불전을 해아리라고 분주하다. 불전함 관리의 개방 열의를 소유하고 있는 신행 모듬 회장들의 몫이다.

이날 정기법회 후 주지 혜승스님과 종무 도현스님, 이종모 신도회장과 윤학진 부회장, 문혜경 경리보살과 각 신행 모듬 회장들이 참석한 사찰운영위원회가 열리고, 2월 포교단 재정결산보고가 이어진다. 신행 모듬 회장들은 회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의문 사항들을 꼬치꼬치 캐묻는다.

사찰운영위는 월말 결산 후 3월 사찰 행사 계획과 포교원 운영 증빙 사항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실시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수립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3월부터 군인법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주 법회 후 다과 및 점심공양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사찰운영위는 초파일 등값 보시금과 특별행사비도 회의에서 결정할 뒤 곧바로 집행할 정도로 결정능과 민주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처음 재정공개를 실시하자 부담을 느낀 것은 오히려 신도기존관습에 있어 공개 취지를 이해 못한 신도들의 이탈로 인해 곤란을 겪어왔던 주지 혜승스님의 오랜 노력이 이제서야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의정부포교단 정혜사의 사찰재정 공개운영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지역포교와 불교계 확장으로 이어진다.

의정부포교단 정혜사의 99년 총수입은 1억9천3백여만원, 총지출은 1억 9천여만원. 이 중에서 건물운영 및 건축비 이자지급, 제사비, 부식비, 스님 및 직원 보시금 등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6천여만원(약30%)이 순수한 지역포교 및 자원봉사 후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돕기 등 사회복지비로 지출됐다.

이와 함께 사찰재정과 별도로 운영되는 신도회 등 각 신행

모듬의 사회복지비 지출내역까지 합할 경우 포교·복지보시금은 더욱 늘어났다. 신도회 산하 신행 모듬의 경우 유치원과 양로원 등 연계단체 지원을 위한 후원회를 결성하여 간사를 파견하는 것은 물론 재정의 일정정도를 매일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는 '연화회'는 불교용품을 판매하여 여름·겨울 불교학교도 운영하며, 중고등학교를 담당하는 '선화회'는 학생회 지도 및 재정지원은 물론 노인무로급식과 소년소녀가장돕기 행사도 열고 있다.

또 불교대학 출신동문들로 구성된 '전법회'는 지역사회 포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14명으로 구성된 '불교대학후원회'는 경기북부의 유일한 불교대학의 발전을 위해 매달 발전기금을 보시고 있다.

매년 2~3천명정도가 찾는 일요 군인법회의 운영도 주지스님과 신도 30여명이 후원회를 구성하여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고 군 생활 고충상담 등을 통한 병영생활의 활기를 심어주고 있다.

이렇듯 의정부포교단 정혜사는 사찰에서 벌어지는 모든 포교활동을 자급자족형태로 꾸려가며 일반사회에도 눈을 돌려 불교의 사회화를 통한 포교를 펼쳐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높다. 지역 자원봉사단체인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종파를 초월한 사암연합회, 경순단, 의정부불교유치원연합회, 의정부문전봉사회 활동의 분거지가 되고 있다.

주지 혜승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을 위한 푸드뱅크사업과 장애인초청행사, 경로잔치, 노인무로급식 등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모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종모 신도회장은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사찰운영은 신도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월보시금 도입으로 사찰운영의 견실과 사회 참여를 높일수 있다"고 밝혔다.

91년 혜승스님과 19명의 거사가 힘을 합쳐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의정부포교원은 의정부 시내 신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528평의 현대식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의정부포교원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포교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21세기 불교포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opia.com)

"정재 쓰임새 투명해야죠"

열린사찰의 의미를 강조한다. "혜승스님도 사찰에 보시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혜승스님은 월보시금을 신도와 같이 납부하는 것은 물론 사찰행사 보시도 함께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스님도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월보시금을 소임에 따라 받고 나머지는 전액 복지포교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정부 회암사 주지스님부터 사찰재정 공개운영을 실시해 온 혜승스님은 의정부포교단 개원과 함께 사찰운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사찰재정의 일정액을 환원하여 지역복지에 힘을 쏟고 있으며, 현재 의정부사암연합, 좋은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의정부유치원연합회 대표 등을 맡고 있다.

사찰재정 공개운영이란

94년 조계종단 개혁 이후 교단의 민주화와 사찰의 투명한 운영을 목표로 사부대중 공의에 의한 사찰운영이 종단정책으로 추진돼 온 상황에서 사찰운영위가 설치된 곳은 35.6% 이종에서 사찰운영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곳은 두손으로 꼽기가 부끄러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분말사 주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67%의 스님들이 사부대중 공의에 의한 사찰운영에 찬성하고 있다. 미묘하게 취급되던 사찰재정공개운영에 대해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은 주지스님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가연대는 지난해 종단시대 이후 반복되는 종단분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을 위해서는 사찰재정 투명화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종회에 종법제정요청, 서명운동 전개, 신도간담회, 지참서발간 등을 통하여 교단이 청정성을 회복하고 불자들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혜사 종무 도현스님은 "주지스님들의 경우 사부대중 공의에 의한 사찰운영에 대해 회의적이다"며 "사찰운영의 공영제를 이루려는 종단의 정책이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때 불교발전도 이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속연회유치원의 수업장면.



◇매주 일요군인법회에는 평균 2~3백명이 참석한다.

신개념 숙면, 케빈 그리고 氣...
장안 화재 목발 심심한 등록 (02-003648)
황토 물침대 경용 돌침대 탄생!!

국내 및 국제 특허받은
100% 상급모토
목단 902

딱딱한 돌침대를 물침대로...
2Way Bed... 돌침대로! 물침대로!
돌침대 인공기 10년, 한가닥 천가닥 제기 기동술
긋고 있는 세계 유일의 특허(등록 0167651)계절

돌침대와 황토물침대의 효능...
◆봄(겨울)세물안남으면방파다아치고...정말 돌침대필요함때
◆여름에 세면바다 축축하고 눅눅한 날!... 황토물침대로 시원하게
◆척추를 반듯하게 교정해 줍니다.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물에서 뜬 원적외선, 물이온이 온이제 배기는 느낌이 없습니다.
◆한국의 나라 황토물침대가 음이온 원적외선 쉼표!!
◆조각파 시스템으로 몸속 깊숙이 원적외선을 쬐어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수백을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줄 수 있습니다.
◆한달 전기로는 1200원 안함! 10년간 사용 기원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 원적외선의 풍부함을 온가족이 맛 볼 수 있는 기회!
원적외선 황토물침대로
어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전국 무료 배송!!

원적외선 2호
氣 리빙스톤 (옥스톤)
본사·A/S : (02)424-9427 직영점: (0333)618-7773